

“종전 기대감·실적이 끌어올린 장세, 장기 상승 동력 필요”

리서치센터장이 본 6000시대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 영향 절대적 기업 실적·성장성 동반 유지되고 업종 확산·자금 유입 장기화돼야

코스피가 33거래일(종가 기준) 만에 다시 '6000선'을 회복했다. 단기간 상승 탄력만 보면 새로운 국면 진입으로도 해석되지만,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더 냉정하다. 증시와 달리 실물경기는 여전히 저성장과 내수 부진 흐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상승이 대형 수출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됐다는 점에서 '지수의 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리서치센터장 10인은 한목소리로 "6000 달성 자체보다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기 지수 상승보다 시장 구조 변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개인 해외투자 자금 회귀를 위해서는 상장사 펀더멘털 개선이 핵심이며, 상법 개정이나 자사 주 소각 의무화 등 정책도 기업 체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만든 6000... '이익이 끌었다' vs "쓸림은 리스크"

이번 코스피 6000 돌파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기업 이익,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이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신고가 랠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상승"이라며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은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6000 이후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상반된 반응.

10배를 하회한다"고 말했다. 밸류에이션 확장이 아니라 이익 증가가 지수를 끌어올린 '실적 장세'라는 의미다.

윤석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코스피200 기준 영업이익의 추정치 상승을 근거로 "글로벌 증시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 모멘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P/B 1.65배 수준은 ROE를 감안하면 실적 개선으로 설명 가능한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이 맞물리며 한국 증시 이익 사이클이 재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선행 EPS가 크게 상향됐고,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도 408조원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설

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멀티플이 확장된 장세가 아니라 이익 추정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린 구간"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개인 중심 ETF 수급이 상승 속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HBM 중심 메모리 업황 회복을 실적 가시성의 배경으로 들었고,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이지만 조선·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도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은 멀티플의 하단을 지지했을 뿐, 상승 방향을 만든 것은 결국 실적"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같은 진단속에서도 공통된 우려가 붙는다. 이영근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시장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소수 종목 중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승이 '건강한 확산'이 아닌 '집중 상승'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탁금 132조→118조 등락... 유입 자금의 '성격'과 '지속성' 시험대

지수 상승과 함께 확대됐던 시장 자금은 최근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투자자예탁금은 2024년 12월 약 49조 9000억원에서 2026년 2월 119조 4000억 원까지 늘며 1년여 만에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후 3월 초 132조원을 정점으로 중동 리스크 영향에 4월 초 107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14일 기준 휴전 기대감이 반영되며 118조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대기자금의 체력 자체는 견조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자금의 '성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창용 센터장은 예금과 부동산 등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정책 환경 변화와 연결 지어 해석했고, 유종우 센터장 역시 "정기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식 수익률이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동원 센터장은 "전면적인 머니무브라기보다 수익률 차이에 따른 선택적 이동"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예탁금 증가만으로 시장 체질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자금 흐름은 '추가 유입'보다 '순환' 성격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정학적 변수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 매매 중심 흐름이 강화됐

다는 것이다. 이는 지수 상승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도 맞물려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지만, 결국 기업 실적과 성장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영근 센터장 역시 "편입 환경은 개선됐지만 외환시장 관련 기준 등 일부 요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며 "확정 변수라기보다 기대 요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코스피 추가 상승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반도체 중심 이익 개선이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자금 유입이 장기화되며, 정책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수 상단이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상승은 실적 개선과 정책 기대가 결합된 결과지만, 업종 확산이 없다면 지속적인 레벨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7000을 논하려면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짚었다. 그는 "산업 편중 문제는 자본시장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반도체 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가깝고, 결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산업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미래에셋 우주테크 ETF, 615억 몰렸다

상장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 스페이스X 상장시 반영 가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 우주테크 ETF'가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약 615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상장 패시브 ETF 기준 상장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14일 상장과 함께 300억 원 규모로 설정됐으며, 상장 직후 개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 특히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는 614억 6900만 원을 기

록하며,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TIGER 미국우주테크ETF'는 록히드마틴, 보잉 등 전통 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순수 민간 우주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차별화된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종목 선별 전략이 초기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트폴리오는 로켓랩(약 23%), 인튜이티브 머신스(17%), AST 스페이스모바일(15%), 레드와이어(15%) 등 뉴스페

이스시대를 주도하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발사체와 위성 등 우주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업스트림 영역에 약 70%를 배분해 산업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향후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다.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25%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해 핵심 기업의 상장 모멘텀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글로벌ET



미래에셋자산운용

F운용본부 본부장은 "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미국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점이 투자자 관심으로 이어졌다"며 "민간 우주 기업 중심의 산업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우주 산업 투자에 대한 완성도 높은 솔루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16년 연속 지속가능성 연감 선정

삼성증권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S&P Global)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연감 2026(S&P Sustainability Yearbook 2026)' 멤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속가능성 연감'은 S&P Global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기반으로, ESG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하는 권위있는 연감이다. 전세계 기업 중 ESG 경영성과가 우수한 상위 10% 기업이 선정되며, 2026년에는 전세계 59개 산업의 9200개사 중 848개사가 상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으로는 63개사가 선정됐으며, 삼성증권은 16년 연속 선정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삼성증권은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 각 분야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 신탁 급성장... 부동산 수익은 악화

금감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 수탁고 1516.5조... 전년비 10%↑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신탁보수↓

지난해 신탁업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간 반면, 부동산신탁사는 수익성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1378조 1000억원) 대비 138조 4000억원(10.0%)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96조원으로 45.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부동산신탁사 457조 5000억원(30.2%), 증권사 332조원(21.9%), 보험사 31조원(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증권사 수탁고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해 은행(7.4%), 보험(11.1%)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정기예금형 신탁과 퇴직연금신탁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72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 7000억원(14.8%)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신탁이 375조 7000억원으로 48조원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기예금형 신탁과

수시입출금 신탁도 각각 25조원, 9조 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재산신탁은 788조 4000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담보신탁과 금전채권신탁은 늘었지만 유가증권신탁은 일부 기관투자자의 계약 만기 해지 영향으로 감소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외형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457조 5000억원으로 7.1% 늘었지만, 신탁보수는 5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8억원(23.7%) 감소했다. /허정윤 기자